

# 뉴미디어 시대의 휴대폰 소설\*

-일본 휴대폰 소설(ケータイ小説)의 서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강현구\*\*

1. 머리말
2. 고백과 접속의 문학
  - 2-1. 고백의 수사
  - 2-2. 접속의 의미
3. 굿배드맨 형 인물과 수호천사 형 인물
4. 맺음말

## 국문요약

휴대폰 소설이란 휴대폰 자판을 눌러가며 창작한 소설을 ‘마법의 i랜드’(魔法のiらんど) 같은 휴대폰 소설 전용 사이트에 올리고, 다시 독자들이 휴대폰으로 내려 받아 읽는 소설을 말한다. 또한 대중적 인기가 검증된 휴대폰 소설을 출판물로 출간한 경우도 해당된다.

휴대폰 소설은 휴대폰이라는 매체의 독특한 특성 개인성과 이동성에 따른 사용자의 친밀도가 현저함, 영상통화와 메일의 사용가능성 등에 힘입어 소설의 창작에서 유통까지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문학이 새로운 매체의 대두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함은 물론일 터인데, 특히 일본에서의 휴대폰 소설의 놀라운 약진을 보면 진지한 탐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휴대폰 소설의 새로운 서사적 특성을 살펴본 이 연구도 그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논의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1. 휴대폰 소설은 특히 휴대폰 메일과 관련하여 개인의 내밀한 상처를 고백하는 문학이다. 휴대폰 메일의 정서와 쓰임새를 그대로 유지한 채 휴대폰 소설은 개인의 ‘숨겨진’ ‘치명적’ 상처를 내밀하게 ‘고백하는 문학이다. 휴대폰 소설은 그것이 고백될 때의 극적

\* “이 논문은 2007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과제임”(과제번호:20080035)

\*\*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효과를 강조하고자 그 상처들이 ‘숨겨진’ 상처들임을 확연하게 드러낸다. 작중 인물들이 그들의 상처에 대해 애써 ‘침묵’한다는 사실이 재삼 강조되며, 숨겨진 상처가 고백되기 전까지 결코 인지되지 못하는 타인들의 ‘인식의 지연’이 의도적으로 부각된다. 아울러 휴대폰 소설의 연재물로서의 성격, 즉시적인 독자의 상호작용성 등과 관련하여 고백의 효과가 지속적이고 점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숨겨진 상처 혹은 비밀은 중층적으로 구성된다. 또한 그들의 ‘숨겨진’ 상처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것인데, 그들의 유일한 꿈과 처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운명과의 그 이득한 격차 혹은 그에 대한 강조어말로 휴대폰 소설의 생애적 강점을 부각시키려는 작자의 집요한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2. 휴대폰 소설은 개인의 깊은 상처를 예외 없이 다루면서, 그 상처를 내밀하고 지속적으로 토로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인물들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식이다. 특히 ‘고백이 갖는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경우는 문자 그대로 고백이 모든 삶의 의미를 관통하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어느 누구와도 어떤 경우에도 고백은 큰 파장을 불러오며 삶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된다. 그래서 고백은 힘이 있고, 그들 삶을 추동시키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휴대폰 소설의 서사의 축은 <고백의 궤적과 온전히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3. 휴대폰 소설은 ‘휴대폰 메일의 속성과 방식 그대로 구축된 삶의 기록들을 일목요연하고 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소설의 강점인 ‘이야기’의 힘을 빌린 것이니, 그것은 생애적으로 ‘자전적’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즉 휴대폰 소설이 창작되고 감상되는 근본적 전제가 ‘휴대폰 메일이 가져온 삶을 노래했다는 것이니, 또 휴대폰 메일을 읽듯이 휴대폰 소설을 읽어달라는 것이니, ‘자전적’이란 개인성과 감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전제이자 근간이 되는 것이다.

4. 휴대폰이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무너뜨리며 개인 간을 ‘접속’ 상태에 머물게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휴대폰 소설은 ‘접속이 불러 온 삶의 변화를 노래하고 있다. 특히 연인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휴대폰 소설에서 ‘접속은 사랑을 새롭게 규정하는 지고의 가치가 되며, 아울러 삶을 추동하는 원리이자 힘이 되고 있다.

5. 휴대폰 소설이 휴대폰 메일의 정서와 쓰임새와 관련이 있고 아울러 휴대폰 소설의 주 독자가 젊은 여성임과 관련하여 그들의 소망적 사고가 담긴 남성 주인공 역으로 특성의 인물형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굿배드맨 형 인물’과 ‘수호천사 형 인물’이다. ‘굿배드맨 형 인물’은 거칠고 반항적이며 바람둥이 기질의 남성이 여성의 진지한 사랑을 만나 자신도 진지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나누는 긍정적 인물로 변하게 된 인물을 가르키는데, 이 인물은 여성이 자신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매력적인 인물을 소유하고 싶은 소망적 사고를 그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는 인물인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여성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수호천사 형 인물’도 주목할 수 있다. 특히 휴대폰을 통해 특정한 인물과 언제 어디서든 접속되어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수호천사 형 인물’의 능력과 헌신성은 그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 훨씬 더 큰 존재와 의미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휴대폰 소설에서는 ‘수호천사 형 인물’의 능력과 헌신성의 한계치가 커져 가는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고, 일상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삶에 드리운 그의 손길을 강조하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된다. (주제어: 휴대폰 소설, 휴대폰 메일, 내면의 상처, 중층적 구성, 고백, 접속, 인식의 지연, 굿베드맨, 수호천사)

## 1. 머리말

일본 휴대폰 소설(ケータイ小説)의 성장세가 예상롭지 않다. 2007년 서적 연간 베스트셀러 발표(TOHAN 발표) 에서 문예부문 베스트셀러 발표를 보면 상위 10위 중 1, 2, 3 위가 모두 휴대폰 소설이다.<sup>1)</sup> 더욱이 문예출판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1위인 「戀空」이 124만부, 2위인 「赤い糸」와 3위인 「君空」도 100만부를 넘었다. 이미 소설의 새로운 발표·수용매체로서 휴대폰이 확고히 자리매김한 현실이다.

주지하다시피 휴대폰 소설이란 휴대폰 자판을 눌러가며 창작한 소설을 ‘마법의 i랜드’(魔法のiらんど) 같은 휴대폰 소설 전용 사이트<sup>2)</sup>에 올리고, 다시 독자들이 휴대폰으로 내려 받아 읽는 소설을 말한다. 또한

1) 특히 2007년 상반기만을 보면 10위 중에 휴대폰 소설이 무려 6개가 포함된다.

2) 본래 무료 홈페이지 작성 서비스를 위주로 했던 ‘마법의 i랜드’는 2000년 3월 소설집필 기능인 「BOOK기능」 추가 후 인기가 급상승하였고, 유저의 급상승에 힘입어 2006년 3월 휴대폰 소설 포털사이트인 마법의 도서관 개관. 2007년 5월에 이르러 공개작품이 100만 타이틀을 초과. 휴대폰을 이용해 창작과 감상이 이루어지고, 게시판 프로그램, 리뷰 등을 통해 작자와 독자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짐.

휴대폰 소설을 전용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도 간단하여 1. 사이트에 접속 2. 회원등록 3. 홈페이지 작성완료 4. 책장 & Book 작성 5. 소설작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読みたい! 書きたい!! ケータイ小説, 大阪藝術大學, 河南文藝, Vol 4, 19쪽.

대중적 인기가 검증된 휴대폰 소설을 출판물로 출간한 경우도 해당된다.<sup>3)</sup> 이미 8000만대가 넘는 휴대폰 보급률, 평소 휴대폰을 통해 한국처럼 SMS보다는 긴 글로 많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메일을 주고받는 문화(일본 휴대폰 메일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 수는 1000자를 넘을 수 있고, 누구나 휴대폰 메일주소는 갖고 있다), 휴대폰의 통신고속화와 패키지 정액제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 출판물로 출간된 휴대폰 소설의 경우 정가가 저렴한 1000엔 정도인 점(일반 문예출판물은 정가 1400 ~1500엔 정도) 등이 성장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2.5인치 안팎의 작은 액정을 통해 소설을 읽는다는 것, 매회 100자 정도의 분량을 내려 받거나 혹은 장편소설 수권을 한 번에 내려 받아 언제 어느 곳에서도 휴대폰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 휴대폰 소설의 문을 연 것으로 평가되는 「Deep Love」의 경우 휴대폰 소설 사이트에 게시된 후 무려 20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출판물로도 270만 부의 경이적인 판매부수를 올렸다는 것, 2007년 ‘제 1회 야생시대 청춘문학대상’에서 수상자가 10만 글자에 해당하는 분량을 휴대폰 버튼으로 작성하여 바로 심사처에 전송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휴대폰이 바로 소설 창작 도구가 된다는 것 등 하나하나가 새롭고 이채롭다.

이처럼 휴대폰 소설이 갖는 새로움과 경쟁력에 주목하여 ‘마법의 i랜드’, 신초사가 운영하는 ‘신초 휴대폰 문고’, 슈에이사의 ‘휴대폰 잡지-the 독서’ 등의 휴대폰 소설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중들도 큰 관심을 보여 가장 유명한 휴대폰 소설 사이트인 ‘마법의 i랜드’의 경우만 하더라도 600만 명 이상의 독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100만 편이 넘는 창작 휴대폰 소설이 게시되어 있다. 또한 요시의 「Deep Love」를 필두로 「天使がくれたもの」, 「Clearness」 등 휴대폰 소설 베스트셀러를 전문적

3) 휴대폰으로 쓰여지고 휴대폰으로 읽혀지는 소설을 협의의 휴대폰소설로, 다시 이 소설을 책으로 출간한 경우를 광의의 휴대폰소설로 정의하기도 한다.

으로 출간한 Starts 출판사는 2007년 휴대폰 소설 문고 ‘산딸기’ 사이트를 신규로 개설하였다.

우리가 근대 출판인쇄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과 소설의 융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휴대폰 소설과 관련하여 역시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목해야 하고 또 소설의 면모 역시 새로운 특징과 성격을 보일 것이라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사실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가능하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휴대폰 소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문학의 외연 확대라는 관점에서 보다 열린 자세로 접근해 보려한다.

## 2. 고백과 접속의 문학

### 2-1. 고백의 수사

휴대폰 소설 사이트의 이용자가 가장 많이 접속하는 시간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이다. 어둠이 내린 가장 고요한 시간에 나만의 공간에서 휴대폰 액정- 그야말로 독서보다는 讀電 혹은 독폰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반짝이는 화면-을 통해 휴대폰 소설을 읽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그 즉시 감상자는 평소 휴대폰으로 메일(문자메시지)을 주고받는 것과 똑 같이 누군가의 내밀한 전언을 듣는 듯한 기분과 분위기에 싸일 것이다. 종이 위에 활자로 인쇄되어 책으로 전달되는 규격화된 공적 느낌과는 달리 누군가가 나에게만 통화로 혹은 메일로 전언한 듯한 이야기를 읽는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정서에 싸일 것이다.

이런 독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는 역시 자신의 가장 ‘내밀한 상처’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 가장

호젓한 시간에 가장 가까운 이에게 주고받는 메일이라면 그것은 역시 자신의 가장 내밀한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극적인 것일 터인데, 바로 그런 사실과 관련하여 휴대폰 소설은 똑같은 정서를 유발하며 개인의 가장 깊고 쓰린 상처를 드러내는데 치중한다. 한마디로 휴대폰 소설은 개인의 내밀한 상처가 고백되는 문학이다. 또 그럴 때 가장 울림이 큰 문학이기도 하다. 이제 그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로 휴대폰 소설은 개인의 상처를 주목하는데, 그 충격성을 한껏 강조하기 위해 대부분 그 상처는 ‘숨겨진’ 것이며 ‘치명적’인 것으로 설정된다. 휴대폰 소설을 통해 충격적으로 전언될 수 있는 상처라면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숨겨진’ 사실이어야 하고 또 한 개인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 ‘치명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Love Link」<sup>4)</sup>에는 4명의 중심인물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들 모두는 그야말로 ‘숨겨진’ ‘치명적’ 상처를 갖고 있다. 잡지사의 프리랜서로 바쁘게 살아가는 나는 밖으로 드러난 사실과는 달리 위선적인 남편의 악랄한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픔이 있으며, 이혼 후에도 공포의 기억에 시달리고, 남편으로부터 받은 모멸감으로부터 도피하고자 간간히 돈으로 호스트를 사 위안을 삼는다. 도서관 사서로 성실하게 살던 동생인 요코는 전 재산을 애인에게 사기 당했으며, 그 충격으로 스스로를 집안에 가둔 채 거식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삶을 포기하려 든다. 또한 적당히 즐기며 호스트 생활을 하는 듯한 료타는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한 자책감과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 중인 동생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가족들의 편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의 동생인 코스케는 유망한 프로축구선수에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통하여 팀에서 후보로 전락

4) 内藤 美嘉, 「Love Link」, 魔法のiらんど

하다 방출되기까지 신체적 고통을 숨겨가며 재기에 몸부림친다. 모두 드러내기 힘들고 감추고 싶은 비밀스런 상처들이어서 문자 그대로 ‘숨겨진’ 것들이라 부를 수 있는데, 휴대폰 소설은 그것이 고백될 때의 극적 효과를 강조하고자 그 상처들이 ‘숨겨진’ 상처들임을 확연하게 드러낸다. 작중 인물들이 그들의 상처에 대해 애써 ‘침묵’한다는 사실이 재삼 강조되며, 숨겨진 상처는 고백되기 전까지 결코 인지되지 못하는 타인들의 ‘인식의 지연’이 의도적으로 부각된다.

특히 ‘숨겨진’ 이라는 수사적 장치는 휴대폰 소설이 휴대폰 소설 사이트를 통해 일정분량씩 연재되고 감상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중적 기호가 즉시적으로 확인된다는 점<sup>5)</sup>, 신문연재소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자들의 지속적 관심을 유발할 연재물 특유의 흥밋거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과 관련하여, ‘숨겨진’ 이라는 수사적 장치는 비밀의 폭로에 값하는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중층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의외의 비밀이 폭로되는 충격성을 가져온다는 점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니 차치하더라도 중층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기로 한다.

「Love Link」에서 숨겨진 상처 중의 하나는 남편의 악랄하고 교활한 가정 폭력인데, 이 ‘숨겨진’이라는 수사적 장치는 더욱이 중층적이다. 즉 한 꺼풀 한 꺼풀 벗겨가며 그 숨은 비밀을 드러내는 그래서 고백의 극적 효과가 점층되는 방식이다. 우선 뜻밖에도 내가 남편의 교활하고 잔인한 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지만 ‘숨겨

---

5) 일례로 일본 휴대폰 소설의 여왕이라 불리는 内藤 美嘉는 휴대폰 소설과 관련하여 참신한 시도를 한 바 있는데, ‘만약 3주 연속으로 휴대폰 소설 공급량이 전주 대비 90%를 넘지 못한다면 당장 연재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책이 없어도 휴대폰이면 OK, <http://blog.naver.com/wonnychung/50007269565>

진' 상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편의 상습적 구타에는 또 다른 숨겨진 사실이 있다. 남편의 위압적인 태도의 이면에는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열등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달라고 아내에게 울면서 매달리는 뜻밖의 또 다른 얼굴이 슬며시 나타난다. 더욱이 또 다시 중첩된 숨겨진 사실로 나 역시 칼끝이 자신을 파고 들어 파국을 초래하기 전까지는 남편의 폭력을 그 나름의 애정표현이라고 여겨온 어두운 이면사가 얼굴을 내민다. 또 동생인 요코의 숨겨진 상처도 그녀가 전 재산을 연인에게 사기당했음이 드러난데 그치지 않고, 실연과 배신의 그늘에는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가면을 쓰고 불안한 삶을 이어온 또 다른 숨겨진 상처가 있음이 밝혀진다.

아울러 그들의 '숨겨진' 상처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것이다. 그 상처들은 전 생애를 걸어 지키고자 했던 가족이나 사랑처럼 소중한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거나 필생의 꿈이 좌절되는 '치명적'인 것이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유일한 꿈인 나에게 섰던 다가선 상처란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남편의 잔인한 폭력이었고, 연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요코에게 돌아온 것은 연인의 악랄한 배신이다. 또 축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코스케에게는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재기불능의 비참한 운명이 던져진다. 그들의 유일한 꿈과 처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운명과의 그 아득한 격차 혹은 그에 대한 강조,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처참한 현실이 주는 처절한 고통의 무게와 혹은 그에 대한 강조야말로 그들 상처가 갖는 '치명적'인 속성을 부각시키려는 집요한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상처의 '숨겨진', '치명적'인 속성이 가장 극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가족사와 관련된 사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상처 - 핏줄이나 가족과 같은 가장 원초적이고 강렬한 믿음이나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치명적인 고



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출생의 비밀 혹은 불우한 가족사와 관련된 상처 - 가 가장 극적인 것이 될 터이다. 성매매를 하는 사쿠라와 출장 호스트인 레오(본명은 하야토)의 사랑을 담은 「Clearness」<sup>6)</sup>에 그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보이는데, 그것은 레오의 불우한 가족사 혹은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아픈 상처이다. 레오의 고용주인 나루세가 사쿠라를 만나 레오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는 장면에서 나루세는 사쿠라에게 레오의 과거사를 말하는데, 그로부터 펼쳐지는 레오의 과거사가 영화의 플래시 백 장면처럼 처리되며 독립된 장처럼 긴 분량의 內話로 그려지고 있다.

「やっぱり親か親なら、子も子ね」  
聞いたことも無いような冷やかな声に、隼人は思わず顔を上げて見た。  
「かわいそうだと思って今まで我が子みたいに接してあげたけどさ。  
やっぱりどこか普通の子と違う考え方に育っちゃうのかしら」面倒きそうな、見下すような目。  
職員室で見た大人たちと同じ目だった。  
「お姉ちゃん……」  
「他のコンパニオンの子たちは皆新しいから知らないだろうけどさ、あなたの母親もちょっと変だったもんね」  
「僕のお母さん？」  
初めて聞かされる“母親”の話に、隼人は心臓が早くなるのを感じた。  
「そう あんたの母親は最低の女だったわ」  
「……」  
「隼人は知らないだろうから教えておくけどね  
私達の仕事はね、確かに男の人と裸で抱き合うけど、“セックス”を最後までするわけじゃないの。  
なのにあんたの母親は、そのタブーを犯してた  
言葉の意味を全て分かるわけではなかった。  
それでも隼人は、自分の母親が侮辱されているのだということが何となく分

www.kci.go.kr  
6) 十和, Clearness, 魔法のiらんど, 第一回 日本ケータイ小説大賞受賞作

かった。

「……金のために本番させて、他の女の子の客まで取っていった。

あげくの果てに子供まで出来ちゃってさ。

どこの誰の子だか分からない赤ん坊を産むって言い出した時は、頭が狂ったんじゃないかと皆で噂したもんよ」

マユミは煙草を一本取り出す。

そして火をつけようとして

「あ、お腹の子に悪いんだった」

笑いながらゴミ箱に捨てた。

隼人は声を出すことも出来ない。

「まあそれであなたが生まれたってわけ

そのときに母親は死んじゃったけどね」

初めて聞く真実。

最初から、母親はいなかったから

それが当たり前だった。 < 87回 >

“역시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더니,”

들어보지도 못한 냉랭한 목소리에 하야토는 고개를 들었다.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내 자식처럼 돌봤는데, 어딘가 보통 아이들과고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로군.”

귀찮은 듯 경멸하는 눈.

교무실에서 본 선생님들과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누나 ….”

“다른 컴패니언들은 새로 들어와서 잘 모르겠지만 네 엄마도 보통은 아니었지.”

“내 엄마?”

처음 듣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에 하야토는 심장의 고동소리가 커져가는 게 느껴졌다.

“그래 … 네 엄마,”

조금 날카로워진 마유미의 시선.

“개는 최악이었어!”

숨이 막혔다.

마유미는 기억의 저 편을 더듬고 있는 양 한 순간 침묵한 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가르쳐 주지만,” 하며 하야토를 바라보았다.  
“우리들의 일은 물론 알몸으로 남자를 상대하는 일이지만 ‘관계’를 끝까지 갖는 일은 아니야. 그런데도 네 엄마는 그 금기사항을 켜 거야.”  
그 말의 의미를 모두 알아들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알 것은 같았다.  
자신의 엄마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쯤은.  
마유미의 표정에서는 불쾌함이 용암처럼 분출되고 있었다.  
“심정을 모르는 건 아냐. 돈이 필요한 건 모두 같으니깐. 하지만 역시 돈 때문에 관계를 끝까지 갖고 다른 여자애의 손님까지 빼앗는 건 최악이라고 생각해.”  
마유미는 잠시 말을 끊었다.  
무거운 침묵 때문에 하야토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만 갔다.  
“그것도 모자라 애까지 만들어 놓고”  
“...”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 낳는다고 했을 땐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  
마유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그리고는 불을 붙이려다가,  
“앗 뱃속에 있는 애한테 나쁘지.” 라고 웃으며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하야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마유미의 입에서는 미끄러지듯 독설이 쏟아져 내렸다.  
“그 결과 네가 태어난 거야. 그 때 네 엄마는 죽고 말았지만”  
그건 처음으로 듣는 진실이었다. 얼굴도 모르는 한 사람의 생명을 딛고 자신의 존재가 싹 틔운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레오가 나루세에게 맡겨져 양육되면서 학교도 그만둔 채 낮에는 나루

---

7) 논의를 위해 소설에서 인용하는 예문은 일본 휴대폰 소설 사이트인 ‘魔法のiらんど’의 일문과 한국에서 출간된 번역본의 국문을 동시에 병기하려 한다. 十和, 「Clearness」, 魔法のiらんど, 第一回 日本ケータイ小説大賞受賞作, 7회. 토와, 「클리어니스」, 송숙정 역, 조형북스, 2007, 121-123쪽.

세가 지배인으로 있는 영업장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과 함께 지내고 밤에는 그녀들 중 하나인 마유미의 집에서 자는 불우한 삶이 그려지는데, 독립된 内話로 길게 그려진 이 부분은 역시 레오의 깊고 슬픈 상처를 부각하는데 온통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それはずっと孤独だった、少年の物語’ (‘이것은 끊임없이 고독했던 소년의 이야기’)나 ‘十数年前’(‘십 몇 년 전’)이라는 간단한 수사적 장치만으로 긴 세월의 격차를 뛰어넘어 레오의 유년 시절 - 학교에서도 쫓겨 나고 오갈 데 없어 찾아가는 유흥업소에서 주인의 냉대와 퇴폐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채 남겨지는 가슴 아픈 시련- 이 독립된 장으로 펼쳐지는데 역시 휴대폰 소설이 다룰 수 있는 가장 득의의 장면이어서, 인물들의 표정이나 행동에는 생동감이 넘치고 충격적인 비밀이 풀려나가는 서사의 과정도 박진감이 있다.

구체적으로 레오의 비극적인 상처란 어머니가 성매매의 외중에서, 그것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출생된 것으로, 또 ‘자신의 출생 때문에 어머니가 죽는’ 저주스런 상처로 그려질 만큼 비극의 극한치까지 밀고 간 날선 것으로 그려지며, 레오를 자상하게 돌보아 주던 마유미가 레오가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자 감정이 폭발하여 저주를 쏟아내는 장면이나 자신의 비극적 운명에 서서히 무너져 가는 레오를 그리는 장면 등은 한결같이 생동감이 넘친다. 그만큼 개인의 내밀한 상처를 고백하는 힘을 가진 휴대폰 소설의 생리를 작자가 인식하고 강조한 결과라 하겠다.

둘째로 휴대폰 소설은 이런 개인의 깊은 상처를 예외 없이 다루면서, 그 상처를 내밀하고 지속적으로 토로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마디로 끊임 없이 인물들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식이다. 휴대폰 소설의 감상자는 마치 평소의 휴대폰 메일 속에서 익숙한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자신의 내밀한 상처를 고백하고 위로받는 혹은 타인의 상처에 대해 내밀하게 주고받는 그 익숙한 체험-이었던 누군가의 내밀

한 상처를 끊임없이 전언받는 식이어서 공감어린 울림이 클 수밖에 없다. 「Love Link」의 나와 코스케의 관계를 보자. 나는 이혼의 아픔을 벗어나고자 돈으로 호스트인 료타를 산다. 그의 선선한 태도에 끌려 만남을 지속하지만 우연히 잡지사의 취재일로 J리그 축구선수인 료타의 동생 코스케를 만나면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이 짝트는 과정은 곧바로 자신의 상처를 토로하는 고백의 과정이기도 하다. 나와 코스케는 서로 송신자와 수신자가 되어 서로의 상처를 끊임없이 문자 그대로 송신하고 수신한다. 휴대폰 소설의 서사는 그런 내밀한 상처의 송신과 수신으로 점철된 경로를 밟는다.

나는 호스트인 료타를 돈으로 사고 있다고 고백하며, 남편으로부터 늘 폭력에 시달렸고 급기야는 남편이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남편의 요구대로 자신이 낸 상처로 위장해야만 했다고 고백하며,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임에도 점점 더 코스케 당신에게 빠져드는 절망감을 고백한다. 고백에서 고백으로 다시 고백으로 이어지는 내밀한 상처의 토로는 토로가 이어지는 동심원의 크기에 비례하여 그 심각성의 날카로움도 커져만 가는데, 특히 동생인 요코의 돈을 갈취하고 동생을 대인기피증과 거식증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코스케임을 안 순간부터는 그 고백이 질투와 같은 원초적인 감정에 휩싸이면서 일층 복잡해진다.

동생을 파멸시킨 장본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겹쳐 코스케와 사랑을 나누는 동생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를 고백하는 장면이 이르면 고백은 만개한 꽃처럼 그 자체가 하나의 미학이 된다. 파멸의 나락에서 신음하는 동생의 가련함에 아파하면서도 문득문득 코스케에 대한 연정 때문에 동생을 질투해야 하는 자신의 슬픈 운명에 몸부림치는 현실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문자 그대로 ‘고백’이 갖는 속성이나 힘을 섬세하게 드러다 본 흔적이 역력하며 그것은 곧 휴대폰 소설의 특징적 면모를 집요하게 파고 든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고백’이 갖는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경우는 문자 그대로 고백이 모든 삶의 의미를 관통하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어느 누구와도 어떤 경우에도 고백은 큰 파장을 불러오며 삶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된다. 연인 사이의 고백은 그들의 사랑을, 친구들 사이의 고백은 그들의 우정을 이끌어 내는 결정적이고 유일한 계기가 된다. 즉 그들은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랑과 우정을 잃어내고 만들어간다. 조금 더 극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고백을 통해서만 사랑과 우정을 표현하고 받아들일 줄 안다. 숨겨진 상처와 비밀을 고백을 통해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우정이다. 그래서 고백은 힘이 있고, 그들 삶을 추동시키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며, 휴대폰 소설의 서사의 축은 <고백의 궤적과 온전히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 휴대폰 소설은 ‘자전적’ 사실을 유난히 강조한다. 우리는 앞서 휴대폰 소설의 독자가 휴대폰 소설을 평소 자신들이 주고받는 휴대폰 메일과 동일한 선상에서 수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휴대폰 소설의 작자와 관련해서도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다. 가장 유명한 휴대폰 소설 사이트인 ‘마법의 i랜드’에는 무려 100만 편 이상의 창작 휴대폰 소설이 게시되어 있다. 이들 작자의 거의 대부분이 전문작가가 아니고 엄격한 문학적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일반인이다. 문자 그대로 아마추어들이다. 그런데 무려 100만 편 이상의 휴대폰 소설이 창작될 수 있는 배경은 이들 작자들이 증언하고 있듯이 평소 휴대폰 메일을 주고받듯이 편안하고 익숙하게 휴대폰 소설 사이트에 이야기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문제시 되는 것이 휴대폰 소설에 값할 수 있는 ‘이야기’일 터인데, 문학적 수련을 엄밀하게 거치지 않는 그들로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토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용이한 일이 될 것이다. 또 그 점은 평소 자신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휴대폰 메일의 사용방식과 가장 근접한 일이기도 하다.<sup>8)</sup> 그래서 그들은 휴대폰 메일의 사용방식에 가장 근접한 휴

대폰 소설의 창작을 위해서도, 또 자신들이 쏟아내는 이야기의 개연성을 위해서도 유난히 자신들의 이야기가 ‘자전적’ 사실임을 강조한다.

그들은 많은 경우 작중인물의 이름을 작자 자신의 이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휴대폰 소설 전용 사이트 게시판의 리뷰나 프로그 등을 통한 작자와 독자 간의 빈번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나 출판물의 後記 등을 통하여 휴대폰 소설 속 이야기가 자신의 자전적 체험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가장 전형적 예를 「戀空」<sup>9)</sup>의 後記에서 볼 수 있다.

あとがき

ヒロとの約束・・・これは私が「戀空」を書き始めた理由のひとつです。

ヒロがまた入院生活を送っていた頃に、ひとつの約束を交わしました。

“ふたりは離れていた時間が長すぎて、お互いに分からない日々が多すぎる。これから付き合っていくに当たって、離れていた日々の出来事を偽り無くノートに書き綴ろう。

そしてそのノートをヒロが退院した時に交換しよう。”

・・・こんな約束です。

離れていた時間、お互い何があってもそれを受け止め、気持ちが変わる事はない。

そんな自信があったからこそできた約束・・・。

- 
- 8) 이러한 사실의 가장 극적인 예로 핀란드의 소설가 한누 문티알라의 소설 「The Last Message」를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친구, 친지들과 주고 받은 1000개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대인의 내면을 파악하는데 문자메시지만큼 유용한 수단은 없고, 또 현대인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문학작품을 구성하는 언어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주장한다. 「The Last Message」에는 직장을 그만 두고 인도, 터키 등을 여행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332쪽으로 구성된 소설 속에는 주인공이 여행기간동안 친구들과 주고받은 1000개의 문자메시지가 시간 순으로 이어진다.

박운찬, ‘휴대폰 문자 메신저 소설’ 출간, 화제, 팝뉴스, 2007.01.26.

- 9) 内藤 美嘉, 『戀空』, 魔法のiらんど

でも・・・そのノートは最後まで完成される事なく、ヒロは旅立っていきま  
した。

私の手元には私と、ヒロの二冊のノートが残りました  
宙ぶらりんになったままの、永遠に叶うことの無いふたりの約束。  
お互いノートの交換はできなくとも、違う何らかの方法で約束を果たしたい。  
そう思って二冊のノートを読みながら、『恋空』を書く事に決めました。  
小説として書き始めた理由は、旅立ってしまったヒロにも届くのではないかと  
と・・・そんな小さな願いがあったから。

### 後記

히로와의 약속 ... 그건 내가 연공을 쓰기 시작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히로가 병원 입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린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둘  
이 헤어져 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헤어  
져 있던 날의 일들을 거짓없이 노트에 적기로 하자. 그래서 히로가 퇴원할 때  
서로의 노트를 교환하자.’

...그런 약속입니다.

헤어져 있던 시간,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로  
인해 마음이 변하는 일은 없다.

그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약속

그렇지만 그 노트를 마지막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히로는 여행을 떠나 버렸  
습니다.

내 손에는 히로와 나의 노트 두 권이 남겨졌습니다.

하늘에 등 떠버린,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한 두 사람의 약속.

노트교환은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다른 형태라도 약속을 이루고 싶다고 ...  
그렇게 생각해서 두 권의 노트를 읽으며 연공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설이라는 형태로 쓴 이유는 여행을 떠나버린 히로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  
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지낸 나날을 읽으  
며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sup>10)</sup>

www.kci.go.kr

10) 미카, 『戀空』, 이주이 역, 조형북스, 2007, 356-357쪽.



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작자는 자신의 자전적 체험을 다룬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원래는 히로와 자신이 이 이야기를 내밀하게 주고받으려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히로와 자신이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에게 벌어지는 실제 체험과 생활을 끊임없이 휴대폰 메일로 주고받았을 터인데, 또 그것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었을 터인데, 헤어져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 했으니 서로 메일로 주고받았을 내용을 메일의 방식 그대로 각각 노트에 남겨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삶의 궤적을 휴대폰 메일로 주고받는 그 익숙하고 지극한 삶의 방식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제 히로가 죽고 없어 완성된 서로의 노트를 공감할 느끼며 주고받을 수 없으니 내가 나와 히로의 노트를 한데 묶어 소설로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 점 또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데, 평소 휴대폰 메일로 주고받았을 삶의 기록을 부득이 서로 노트에 담아 기록하였지만 그 삶의 기록들이 길고 복잡하니, 죽은 히로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일목요연하고 극적으로 정리해 소설로 꾸몄다는 것이다. 아울러 넌지시 독자에게도 그 방식 그대로 전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연히 ‘자전적’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전적’이란 이처럼 휴대폰소설이 성립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전제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은 후기의 말미에 제시된 <<小説を書き終えて伝えたくなかったけれど、伝えるべき事実を今ここで発表します。つらいけれど私は応援してくれる読者の方には本当の事を伝えたいと思います。HPに赤ちゃんのその後についての応援や質問をたくさん頂きました。物語のラストで 私に授けられた命……。しかし赤ちゃんは最終的に旅立ち……。ヒロのいる天国に逝ってしまいました。でも私の中で二人の赤ちゃんは永遠に生きています。そう ヒロと同じように、赤ちゃんとヒロが見守ってくれているから 私はこの小

説を書き上げる事ができました。소설을 다 쓰고 난 지금, 전하고 싶지 않지만 전해야만 하는 일을 발표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그 후의 아기에 관한 응원과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야기 뒷부분에 나에게 주어진 작은 생명. 그러나 아기는 결국, 여행을 ... 히로가 있는 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속에는 두 아기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히로와 똑 같이 ... 아기와 히로가 지켜봐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설을 끝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라는 대목인데, 이를 통해 작자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나는 당신들에게 나의 내밀한 자전적 체험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휴대폰 메일로 주고받듯이 히로와 주고 받은 사연들이 중심이 된 이야기를 소설로 묶어 당신들에게도 똑 같이 고백한다. 당신들도 휴대폰 메일을 읽듯이 나의 사연을 읽어달라>

## 2-2. 접속의 의미

휴대폰 소설은 휴대폰이 다른 미디어에 비해 나만의 사적 소유이면서 자유로운 이동성을 갖추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특징적 면모를 갖는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문자 그대로 타인과 언제 어디서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sup>11)</sup>, 특히 그 이용이 비약적인 수준에 이른 메일은 공적인 장소와 시간마저 무너뜨리며 사람사이를 연결시킨다. 공적인 회의에 참석하여 일을 하면서도 학교에서 수업중인 타인과 문자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 특히 한번 연결되면 수십통씩의 메일을 단번에 주고 받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용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타인과 열

11) 사실 휴대폰 중독증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현대인 특히 젊은 세대의 휴대폰에 대한 집착은 현실공간에서의 개인화와 그로인한 소외와 단절로부터 벗어나 누군가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폭된 사실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강진숙 외, 『모바일 공간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KT 문화재단, 2005, 148쪽.

굴을 맞대고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는 엄연히 액정 위에 글자가 띄어지는 문자언어 형태이지만 동시에 ‘어디야’, ‘도서관이야’, ‘뭐하니’, ‘리포트 쓰는 중이다. 너무 힘들다’처럼 구술언어의 특성을 갖는다.<sup>12)</sup> 그러니 이 썬되면 휴대폰은 자신이 누군가와 항시 ‘접속’되어 있다는 정서를 불러 오게 되는데, 특히 연인이나 친구처럼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는 휴대폰의 문자메시지가 보급되기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빈번하고 끈끈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혹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sup>13)</sup> 한마디로 특정의 인물들과는 늘 ‘접속’되어 있는 것이다.<sup>14)</sup>

휴대폰 소설은 이 변화된 의식과 문화에 집요한 관심을 보인다. 즉 앞서 말한 ‘접속’은 이제 사랑이나 질투 등과 같은 우리의 의식이나 감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휴대폰 소설은 이 점에 예민한 촉각을 겨누고 있다. 휴대폰 소설은 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연애문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랑은 모든 문학의 소중한 관심사이지만 휴대폰 소설 속의 사랑은 각별하고 새롭다. 아니 달리말해

12) 때문에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를 TV나 라디오가 가져온 제 2차 구술성에서 문자문화로의 회귀로 단순화 하여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말하기와 쓰기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구술문화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성립된다.

고현범, 『휴대전화, 철학과 통하다』, 책세상문고·우리시대, 2007, 165 쪽.

13) 거쟁은 현대 정보통신 기술은 주로 지리적 거리를 좁혀 멀리 위치한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을 대체하게 만들면서 면대면 접촉이 갖는 고유의 가치를 파괴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유일하게 휴대전화의 영향은 이러한 기술적 동향 속에서 예외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히려 면대면 접촉을 통해 파생되는 가치나 친밀감을 더 강조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강명현 외, 『모바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87쪽.

14) 특히 휴대폰의 이메일(문자메시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상황에 전적으로 몰입하지 않아도 되고 배경과 같이 깔아놓은 연결상태의 유지가 가능하여 문자 그대로 영속적인 접속의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동규 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세계사, 2007, 33쪽.

휴대폰 소설은 새롭게 형성되는 사랑에 대해 노래하기 시작했다.

휴대폰 소설 속의 젊은 연인들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접속’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메일(문자메시지)을 주고 받으며 서로를 탐색한다.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위험에 처했을 때도 끊임없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주고받는 문자메시지의 정보에도 관심을 두지만 그보다 훨씬 더 즉시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달리 말하면 얼굴을 맞대고 말을 나누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접속’되어 있다는 느낌 자체에 안온함과 행복을 느낀다. ‘우리는 접속되어 있구나’ 하는 그 편안한 만족이 이제 지고의 가치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이제 그 가장 극적인 몇 장면을 「戀空」을 통해 살펴보자

「戀空」은 미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벌어지는 학창생활과 사랑을 그리고 있어 학원로맨스라 부를만하다. 연공은 미카가 연인인 히로와 처음 만나게 된 계기도 PHS(휴대폰 이전에 나온 기기로서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음)의 메일이고 히로가 죽은 후 그를 추억하는 결미도 휴대폰 메일인 것이 상징하듯 그들의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우정과 갈등의 언저리에는 늘 휴대폰 메일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 하나를 보면 미카가 유산을 하여 힘들었던 시기를 견뎌가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짐해가던 어느날 미카는 수업 중 히로의 메일을 받는다. 좋은 곳에 지금 당장 가고 싶다는 전언인데 둘은 즉시 메일을 주고받으며 약속을 한다. 막힌 교실벽 사이를 넘어 또 수업중이라는 공적 시간을 넘어 둘은 문자 그대로 ‘접속’되어 있으며, <<あっさりと返信した。だって授業なんかよりヒロといたいんだもん。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대답했다. 수업보다 히로와 함께 같이 있고 싶으니까>>에서 볼 수 있듯이 둘은 휴대폰을 통해 순간적으로 사적 시간과 사적 공간에 둘만이 남겨지며 서로 접속되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의미로, 가장 큰 기쁨으로 남는다. 그들에게 사랑은 이처럼 ‘접속’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두 번째 장면을 보자. 미카는 히로와의 사이에 생긴 아이를 유산한 데다가 히로와도 헤어져 힘든 나날을 보내는데, 매년 아이가 유산된 날 공원을 찾아 아이의 명복을 비는 의식을 홀로 치른다. 그런데 미카의 의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절을 보면 <<花壇に向かって手を合わせた。

【あれから二年が経ちましたね。君は今幸せですか…??】天国の赤ちゃんに送ったメッセージ。そしてヒロに送ったメッセージ。화단을 향하여 손을 모아 기원한다. 【벌써 2년이 지났어. 넌 지금 행복하니?】 천국에 있는 아기에게 보낸 메시지. 그리고 히로에게 보낸 메시지>>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미카는 여전히 휴대폰 메일을 통해 히로와 아기에게 교통하고 있으며, 두 사람과 여전히 ‘접속’되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싶어 한다. 바로 그 ‘접속’이야말로 미카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지표이고 삶의 의미이자 힘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장면을 보자. 히로가 미카에게 이별을 선언하고 냉정하게 연락을 끊어버린다. 더욱이 일부러 미카에게 상처를 주며 다른 여자들과 보란 듯이 어울린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암에 걸린 히로가 미카에게 힘든 짐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였음이 드러나고 미카와 히로는 다시 사랑을 나누게 된다. 하지만 히로는 투병 중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사이 미카는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된다. 겨울의 문턱에서 미카는 히로를 애뜻하게 추억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자.

DEAR:大好きなヒロ  
 元気にしていますか??  
 そっちは  
 寒くないですか??  
 風邪引いてませんか??  
 幸せに  
 暮らしていますか??

届くかはわからないけど  
ヒロに手紙を書いてみました。  
美嘉は元気です。  
風邪引いてないよ。  
泣き虫もね、  
無事卒業した。  
にんじんも少しずつ  
食べれるようになって来たよ!!  
……偉い??  
あれからね、  
大学やめちゃった。  
ヒロとの約束  
守れなくてごめんね。  
今産婦人科に  
通ってるんだ。  
(中略)  
じゃあ…またね。  
ヒロまたね!!  
2005年12月25日  
FROM:美嘉

‘DEAR: 사랑하는 히로 잘 있었어? 거기는 춥지 않아? 감기는 걸리지 않았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 거기까지 잘 도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히로에게 편지를 써. 난 잘 있어. 감기도 안 걸렸어. 이제 울보를 졸업했어. 당근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어. …훌륭하지? 그리고 대학은 그만 두었어. 히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지금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어. (中略) 히로 또 봐! 2005년 12월 25일 FROM : 미카’ 15)

미카는 죽은 히로와 여전히 휴대폰 메일로 교통하고 있는데, 휴대폰 메일로 주고받는 어투 그대로 히로와 소통하고 접속한다. 바로 그 익숙한

풍경이 미카를 여전히 사랑에 빠져 있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다. 미카는 늘 휴대폰 메일을 주고받고 있으며, 조금 극적으로 말하면 휴대폰 메일이 그리는 궤적과 자장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휴대폰 메일의 형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sup>16)</sup>

### 3. 굿배드맨 형 인물과 수호천사 형 인물

휴대폰 소설이 휴대폰 메일의 정서와 쓰임새와 관련이 있고 아울러 휴대폰 소설의 작자나 주 독자층이 젊은 여성임과<sup>17)</sup> 관련하여 거의 모든 휴대폰 소설은 어리거나 젊은 여성이 1인칭 화자로 나서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언제나 그들의 젊음에 값하는 일상사들만이 그대로 펼쳐져 소설 속 세계가 바로 독자 그들의 이야기라는 상상을 한껏 강조한다.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휴대폰 소설에는 1인칭 화자인 젊은 여성의 상대역 즉 남성 주인공 역으로 특정의 인물형이 등장한다. 그들이 바로 ‘굿배드맨 형 인물’과 ‘수호천사 형 인물’이다. 이 두 인물은 화

16) 아울러 이 점은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을 시사하기도 하는데, 휴대폰 소설의 작가나 등장인물 혹은 독자층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휴대폰 메일이 여성들에게 사랑과 관련된 새로운 태도와 행동 그리고 환상을 심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휴대폰 소설에 그것의 적나라한 반영이 보인 것을 의미한다. 즉 Eilwood-Clyton의 지적처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용기에 대한 도취감을 경험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문화적, 개인적 제재를 초월할 수 있게 한다 ... 그리고 그들에게 낭만적인 금기시 되는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접근권을 제공한다.’ 이동후 외, 『모바일 소녀@디지털 아시아』, 한울 아카데미, 2006, 217쪽. 재인용.

17) 마법의 i랜드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유저의 남녀비가 4 : 6정도이고, 연령층은 15세에서 24세가 약 60%임.  
ケータイ小説は「作家」を殺すか?, 文學界 2008년 新年座談會, 文學界 2008년 新年號. 193쪽.

자인 젊은 여성,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자면 감상자인 젊은 여성독자의 소망적 사고가 창출한 인물들이다.

첫째로 거칠고 반항적이며 바람둥이 기질의 남성이 여성의 진지한 사랑을 만나 자신도 진지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나누는 긍정적 인물로 변하게 되는 ‘굿배드맨 형 인물’을 들 수 있다. 남성의 변화의 계기가 한 여성의 진실하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에 눈뜬이라는 점과 함께 이타적이고 예의바르며 특히 여성에게 자상한 신사로 거듭난다는 점 등이 독특한 개성을 이룬다. 물론 ‘굿배드맨 형 인물’은 주인공 여성을 만나기 전 부정적 속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으며 리더적 기질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양면성 있는 기질과 성격으로 신비한 매력이 있다. 흔히 여성 중심인물이 거둬 토로하는 ‘감당하기 힘든 이끌림’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마치 모두에게 인기가 있어 범접하기 힘들지만 도도함이 오히려 매력인 또 그들이 갖춘 신비하고 출중한 외모가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서는 인기 스타와 판박이다.

더욱이 이들 굿배드맨 형 인물들이 독자들의 분신으로 느껴지는 젊은 여성화자를 만나 사랑을 진지하게 여길 줄 알고 여성에게 정중한 인물로 거듭 난다면 그 얼마나 가슴 설레고 환상적인 만남이겠는가? 매력적인 인물이 ‘나’로 인해서 변하고 ‘나’만을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소망적 사고가 이보다 더 완벽하게 재현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굿배드맨 형 인물은 이 시대 젊은 여성들의 꿈이 녹아든 인물로 한밤중 휴대폰 액정 화면에 환한 빛으로 찍히는 ‘나’와 실감나는 대화와 사랑을 나누는 살아 있는 인물인 것이다.

「戀空」에서 히로는 큰 키와 잘 생긴 외모 그리고 멋을 낼 줄 아는 감각과 리더적 기질을 갖추고 있는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분을 참지 못해 주먹다툼이 잦으며 때로 비행청소년처럼



방탕아적 기질을 보이기도 한다. 그 묘한 불균형 혹은 양면성 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적 기질이 혼돈성과 함께 신비함을 가져 온다. 하지만 그 혼돈성조차도 나를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히로 스스로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었어. … 너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가 있어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고 꿈도 없었어. 그런데 널 만나면서부터 … 나 질투를 하고 불안해 하기도 했어’라고 말할 정도로 어둡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부정적 인물에서 한 여성과 진지한 사랑을 나누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하는 긍정적 인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마디로 많은 여성에게 인기 있고 매력적인 남성이 ‘나’의 힘으로 그의 부정적 기질과 성격을 바꾸고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 ‘나’만 사랑하고 ‘나’와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굿배드맨 형 인물’은 사랑에 대해 젊은 여성이 꿈꿀 수 있는 소망적 사고를 그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는 인물인 것이다. 그래서 휴대폰 소설에는 ‘굿배드맨 형 인물’이 빈번하고도 중요하게 등장한다.

다음으로 ‘수호천사 형 인물’을 주목할 수 있다. 휴대폰 소설에 등장하는 젊은 여성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다. 「Clearness」의 나(사쿠라)는 카드 빛에 쫓겨 유흥업소에 나가 일을 하며 돈을 받고 매춘을 한다. 대학생살을 하며 이중적 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삼각관계에서 폭력 사건에 휘말려 도피 생활을 하기도 한다. 또 「연공」의 나(미카)는 여고생이지만 어린 나이에 임신과 유산을 경험하며 강간을 당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들 스스로 충동적 삶을 살기도 하지만 주변의 환경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녀들은 그 험한 삶의 질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고 자신을 이해해 주며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성을 목마르게 갈구한다. ‘수호천사 형 인물’은 이런 소망에 완벽히 부응한다. 언제나 그녀들의 언저리에 머물며 그녀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아무런 대가없이 그녀들을 진심

으로 사랑한다. 당연히 그녀들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그들의 능력과 힘이 재삼 강조되며 한편으로는 그들의 헌신성이 거듭 부각된다.

「戀空」에서 히로는 미카가 위기에 처하면 언제나 나타나 때로는 완력으로 때로는 넓은 이해심으로 미카를 구하고 감동하게 만든다. 특히 그의 헌신적 사랑이 강조되는데 가장 극적인 장면은 그가 암으로 시한부 생명을 살게 되면서 미카의 행복을 빌고자 거짓으로 이별을 고하고 미카를 떠나보내려 하는 애달픈 몸짓에서 가장 강조된다. 미카에게 냉정히 대하고 다른 여자를 보란 듯이 사귀는 사건들이 반복되는데,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히로의 헌신성이 한껏 강조된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에도 한 여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또 연인의 행복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그 몸짓이야말로 휴대폰 소설이 그리고자 했던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또 나를 위험에 버려두지 않고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헌신성과 능력을 갖춘 연인’을 갖고 싶다는 소망적 사고에 정확히 값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헌신성에 대한 강조는 「연공」의 유에게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유는 미카를 만나면서 진지한 사랑을 나누고 그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방패막이가 되어 주지만, 그녀를 구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녀가 여전히 히로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는 이별의 예감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오히려 그녀의 사랑의 끈을 이어주려고 노력한다. 히로가 자신이 시한부 생명임을 알고 미카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유는 미카에게 히로와 다시 만나 진심을 확인하도록 배려한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자신의 절실한 사랑조차도 감추고 그에 더해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이어주려는 그 헌신성에 대한 새삼스런 강조는 바로 ‘수호천사 형 인물’이 가진 힘과 매력에 대한 의도적인 강조에 다름 아닌 것이다.

특히 휴대폰 소설에서 ‘수호천사 형 인물’이 더욱 더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휴대폰이 휴대가 가능한 개인 미디어로서 통화와 메일 그리고 인터넷 등의 이용을 통해 개인의 분신처럼 되어 버린 현실과 관련이 있다. 즉 휴대폰을 통해 특정의 인물과 언제 어디서든 접속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라면 수호천사형 인물의 능력과 헌신성은 그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 훨씬 더 큰 존재와 의미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로 인한 나의 안온함과 행복감도 일상의 모든 차원으로까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휴대폰 소설에서는 ‘수호천사형 인물’의 능력과 헌신성의 한계치가 커져 가는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고, 일상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삶에 드리운 그의 손길을 강조하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된다.

#### 4. 맺음말

휴대폰 소설은 휴대폰이라는 매체의 독특한 특성- 개인성과 이동성에 따른 사용자의 친밀도가 현저함, 영상통화와 메일의 사용가능성 등에 힘입어 소설의 창작에서 유통까지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문학이 새로운 매체의 대두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함은 물론일 터인데, 특히 일본에서의 휴대폰 소설의 놀라운 약진을 보면 진지한 탐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휴대폰 소설의 새로운 서사적 특성을 살펴본 이 연구도 그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논의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1. 휴대폰 소설은 특히 휴대폰 메일과 관련하여 개인의 내밀한 상처를 고백하는 문학이다. 휴대폰 메일의 정서와 쓰임새를 그대로 유지한 채 휴대폰 소설은 개인의 ‘숨겨진’ ‘치명적’ 상처를 내밀하게 ‘고백’하는 문학이다. 휴대폰 소설은 그것이 고백될 때의 극적 효과를 강조하고자

그 상처들이 ‘숨겨진’ 상처들임을 확연하게 드러낸다. 작중 인물들이 그들의 상처에 대해 애써 ‘침묵’한다는 사실이 재삼 강조되며, 숨겨진 상처가 고백되기 전까지 결코 인지되지 못하는 타인들의 ‘인식의 지연’이 의도적으로 부각된다. 아울러 휴대폰 소설의 연재물로서의 성격, 즉시적인 독자의 상호작용성 등과 관련하여 고백의 효과가 지속적이고 점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숨겨진 상처 혹은 비밀은 중층적으로 구성된다. 또한 그들의 ‘숨겨진’ 상처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것인데, 그들의 유일한 꿈과 처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운명과의 그 아득한 격차 혹은 그에 대한 강조야말로 휴대폰 소설의 생래적 강점을 부각시키려는 작자의 집요한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2. 휴대폰 소설은 개인의 깊은 상처를 예외 없이 다루면서, 그 상처를 내밀하고 지속적으로 토로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인물들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식이다. 특히 ‘고백’이 갖는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경우는 문자 그대로 고백이 모든 삶의 의미를 관통하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어느 누구와도 어떤 경우에도 고백은 큰 파장을 불러오며 삶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된다. 그래서 고백은 힘이 있고, 그들 삶을 추동시키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휴대폰 소설의 서사의 축은 <고백의 궤적과 온전히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3. 휴대폰 소설은 ‘휴대폰 메일의 속성과 방식 그대로 구축된 삶의 기록’들을 일목요연하고 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소설의 강점인 ‘이야기’의 힘을 빌린 것이니, 그것은 생래적으로 ‘자전적’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즉 휴대폰 소설이 창작되고 감상되는 근본적 전제가 ‘휴대폰

메일이 가져온 삶'을 노래했다는 것이니, 또 휴대폰 메일을 읽듯이 휴대폰 소설을 읽어달라는 것이니, '자전적'이란 개연성과 감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전제이자 근간이 되는 것이다.

4. 휴대폰이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무너뜨리며 개인 간을 '접속' 상태에 머물게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휴대폰 소설은 '접속'이 불러 온 삶의 변화를 노래하고 있다. 특히 연인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휴대폰 소설에서 '접속'은 사랑을 새롭게 규정하는 지고의 가치가 되며, 아울러 삶을 추동하는 원리이자 힘이 되고 있다.

5. 휴대폰 소설이 휴대폰 메일의 정서와 쓰임새와 관련이 있고 아울러 휴대폰 소설의 주 독자가 젊은 여성임과 관련하여 그들의 소망적 사고가 담긴 남성 주인공 역으로 특정의 인물형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굿배드맨 형 인물'과 '수호천사 형 인물'이다. '굿배드맨 형 인물'은 거칠고 반항적이며 바람둥이 기질의 남성이 여성의 진지한 사랑을 만나 자신도 진지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나누는 긍정적 인물로 변하게 된 인물을 가르키는데, 이 인물은 여성이 자신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매력적인 인물을 소유하고 싶은 소망적 사고를 그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는 인물인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여성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수호천사 형 인물'도 주목할 수 있다. 특히 휴대폰을 통해 특정의 인물과 언제 어디서든 접속되어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수호천사 형 인물'의 능력과 헌신성은 그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 훨씬 더 큰 존재와 의미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휴대폰 소설에서는 '수호천사 형 인물'의 능력과 헌신성의 한계치가 커져 가는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고, 일상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삶에 드러운 그의 손길을 강조하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內藤 美嘉, 「戀空, 魔法のiらんど

內藤 美嘉, 「Love Link」, 魔法のiらんど

十和, 「Clearness」, 魔法のiらんど, 第一回 日本ケータイ小説大賞受賞作.

미카, 「戀空, 이주이 역, 조형복스, 2007

미카, 「러브링크」, 김경인 역, 북클럽리오, 2007.

토와, 「클리어니스」, 송숙정 역, 조형복스, 2007.

### 2. 논문과 단행본

강명헌 외, 『모바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강진숙 외, 『모바일 공간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KT 문화재단, 2005.

고현범, 『휴대전화, 철학과 통하다』, 책세상문고·우리시대, 2007.

박운찬, ‘휴대폰 문자 메신저 소셜’ 출간, 화제, 팝뉴스, 2007.01.26.

성동규 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세계사, 2007.

이동후 외, 『모바일 소녀@디지털 아시아』, 한울 아카데미, 2006.

책이 없어도 휴대폰이면 OK, <http://blog.naver.com/wonnychung/50007269565>

読みたい! 書きたい!! ケータイ小説, 大阪藝術大學, 河南文藝, Vol 4.

ケータイ小説は「作家」を殺すか?, 文學界 2008년 新年座談會, 文學界 2008년 新年號

## Abstract

### Mobile Phone Novels in the Era of New Media

#### -A New Possibility of Mobile Phone Novels in Japan-

Kang, Hyun-Koo

Mobile phone novels are a new genre, where mobile phones have become a tool of creation and appreciation. The new genre has quickly grown and already come into the spotlight in Japan. It was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phones and therefore has its own peculiarities. The following are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mobile phone novels:

1. Mobile phone novels are a kind of literature in which a person confesses his deep inner scars. It sustains the usages and emotions of mobile phones' mails and confesses a person's private 'hidden' or 'fatal' scars. Mobile phone novels clearly express the 'hidden' scars in order to emphasize the effect of confessing. In addition, the secrets related to the scars are multi-layered.

2. Mobile phone novels use the method of continuous revealing of the personal deep scars, that is to say, sending characters' scars to receivers without an end. 'Confessions', especially, become always moments of changing ways of living and driving forces of leading living. So the narratives of mobile phone novels completely corresponds with the orbits of confessions

3. Mobile phone novels straightforwardly show the facts that they deal

with the experiences of their writers own. Mobile phone novels utilize the method of mobile phones' mail usage and emotions (sharing the writer's own experiences and stories), so the autobi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the basis of guaranteeing their probabilities and strong impressions.

4. Mobile phone novels sing changes in life made by computer connections. In mobile phone novels, which especially sing love between lovers, 'connections' have become a supreme value that defines love quite newly. 'Connections' have also become a driving force and a principle of living.

5. The main audience of mobile phone novels are mainly young females, so the frequent characters are the types of 'good bad man' and 'the guard angel'. These are the characters who are the reflections of female readers' wishful thinking and, when especially related to 'connections', the characters' powers and devotions are distinctively emphasized. (Key Words: Mobile phone, mobile phones' mails, confession, inner scars, the experiences of their writers own, connection, good bad man, the guard angel)

위 논문은 2008년 3월 24일 투고되었고, 2008년 5월 28일 심사 완료 후,  
6월 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